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6일 목요일 음 3월 24일 (1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에 구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1℃. 낮 최고 기온은 18-21℃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snow, and wind.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risk levels for food poisoning and colds.

월드뉴스

외신, 코로나19 팬데믹 속 한국 '총선' 주목

BBC "차분하게 투표 진행"

미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한국에선 예정대로 15일 총선이 실시되자 외신들이 한국의 총선 상황에 관심을 두고 집중 보도했다.



1m 거리를 두고 투표 기다리는 시민들.

BBC방송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총선 소식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며 한국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에 코로나19가 퍼진 이래 가장 큰 선거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선거가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유권자들은 투표장 앞에서 1m 씩 떨어져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 다음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체온을 측정해야 투표용지를 받아들이고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며 꼼꼼한 방역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미국 일부 주가 대선후보 경선을 미루고, 프랑스는 지방선거를 미룬 상황에서 한국이 선거를 치러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BBC방송은 한국 총선 사전투표율이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감염 공포가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15개 이상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으며 프랑스는 지난달 치른 지방선거 1차 투표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자 결국 2차 투표를 미뤘다. 폴란드도 대통령 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김완봉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요즘 한라생태숲을 걷다 보면 큰부리 까마귀 부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접근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겸손과 겸허의 힘

를 들성들성 내려놓았다가 한꺼번에 물어서 날아가기를 반복했다. 서로가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지난달 코로나19 정국에 제주로 여행은 확진자가 제주 사회에 엄청난 분노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지 않아,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겸손과 겸허의 힘이 마스크 대란과 사재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비상정국에 과밀 접촉을 피해야 함에도 선거를 치른 나라는 훗날 어떻게 평가될까.

열린마당

오늘은 청렴 실천의 날



김수미 제주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취해 인사불성이 된 주취자를 상대로 도움을 주고자 다가가면 돌아오는 건 막말뿐이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경찰 교육을 받으려 했던 다짐들이 나약해지고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제 정말 연습이 아니고 실전이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늘어났다.

국제투명기구(T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으며,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제사회에서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한 없는 걱정을 하는 나에게 아라파출소장 및 팀 직원들은 진심 어린 충고와 나의 장점을 항상 언급하며 응원해 주셨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청렴도 평가 결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2019년에는 5등급으로 떨어졌고, 정책고객 평가도 만년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실습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꼼꼼한 일을 하게 된 만큼 조심스럽고, 시민 곁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하며 그 바탕에는 먼저 나 자신부터 청렴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사무실에 앉아 야간근무 중에는 평소 들던 전화벨 소리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신고출동 현장에 나가 어쩔지 몰라 두리번대는 모습에 선배들에게 호되게 혼든다. 또 술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내기 경찰관의 다짐



강지석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도움이 필요할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고, 그 부름에 응답해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며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명예로운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군 제대 후 고된 수험생활 끝에 드디어 경찰관이 돼 지난 1월 아라파출소에 발령받은, 실습 4개월이 채 안된 새내기 경찰관이다.

중앙경찰학교에서 4개월 간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고 꿈에 그리던 제주동부경찰서로 발령 받아 근무를 하면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사무실에 앉아 야간근무 중에는 평소 들던 전화벨 소리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신고출동 현장에 나가 어쩔지 몰라 두리번대는 모습에 선배들에게 호되게 혼든다. 또 술에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Hearing Aid Fair' (국제보청기프라자) with details on discounts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WIDEX hearing aids, highlighting features like sound quality and warranty.

Advertisement for 'Jeju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제주 통신기반 구축) by Hanra Electronics.

Advertisement for TI Information Technology (티엔정보기술(주)) offering various IT solutions.